

신상문구점

김선영 장편소설

독 후 활동지

이름
학교 | 학년
지도교사

특별한서재

1. '신상문구점'이 우리 동네에 있다면 어떤 '신상'을 주문하고 싶나요?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2. 황 영감은 신상문구점에 신상을 채워 놓고도 절대 팔지 않습니다. 기묘한 사연 때문에 신상문구점 앞을 지키기만 하지요.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마음은 신상문구점 앞 평상마루에 쌓이고, 황 영감의 사연도 서서히 드러납니다. 그집식당의 이상한 계약 조건도 밝혀집니다. 황 영감의 사연과 그집식당의 비밀을 정리해 봅시다.

① 황 영감의 사연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② 그집식당의 계약 조건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3. 그집식당에 앉아 팔죽이나 팔칼국수를 먹으며 이야기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? 그 사람과 어떤 주제의 대화를 나누고 싶나요. 지금 나의 고민은 무엇인가요?

① 그집식당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

.....

.....

.....

② 나누고 싶은 대화나 나의 고민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4. 소설 속에는 동하, 편조, 모경이 등장합니다.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누군가의 부재를 극복합니다. 이목단 여사, 동하 엄마, 단월 할매, 황 영감, 택이 아저씨 등 주변 인물도 많이 등장하지요. 등장인물 중에 가장 마음에 와 닿은 인물은 누구인가요?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

① 내 마음에 남은 등장인물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② 이유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5. 소설 속 인물들은 모두 누군가의 위로가 되었습니다. 동하는 이목단 여사와 엄마를 지켜 주었고, 이목단 여사는 단월 할매와 황 영감, 택이 아저씨를 한껏 받아 주었습니다. 택이 아저씨는 그 마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. 편조와 동하, 모경도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위로하지요. 소설 속 인물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.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위로입니다.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요.

① 나는 누군가의 위로인지 생각해 볼까요? 또는 누군가의 위로이고 싶은지 적어 보세요.

② 소설 속 인물 중 가장 위로해 주고 싶은 인물에게 편지를 써 보면 어떨까요?

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otted lines.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,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practice. There are no margins, text,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.

6. 주인공 동하는 할머니에게 늘 짐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“성장기에는 누군가에게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, 의지하고 보호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.”라고 김선영 작가는 말합니다. 나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나요?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다짐을 하게 만들었는지 적어 볼까요.

① 나의 경험

② 다짐

[illegible]